

시연(施連) 칼럼

日本을 모르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다



글 권오선 (安東權氏 宗派會長, 칼럼니스트)

日本の 서남쪽 다네가시마(種子島)를 여행하다보면 아리따운 소녀가 가슴에 종을 품은 섬뜩한 인형(人形)을 기념품(紀念品) 가게마다 팔고 있다. 인형(人形)을 쓸어 담는 한국관광객(韓國觀光客)들과 수없이 마주친다.

인형(人形)의 실제 주인공(主人公)은 16살의 와카사(若狹). 오랜 세월 변함없이 日本人들로부터 사랑을 받지만 우리에게서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과거사(過去事)의 산물이다.

1543년 8월 25일 일본(日本)의 西南쪽 다네가시마(種子島)에 포르투갈 난파선(難破船)이 닿았다. 당시 포르투갈 선원(船員)들이 갖고 있었던 머스킷(火銃)의 위력(威力)에 반한 이 섬의 영주(島主, 時曉)는 종의 무게와 같은 량의 은(銀) 2000냥, 지금의 가치로 치면 20억 원을 주고 넘겨받은 머스킷을 대장장이에게 꼭 같이 만들 것을 명령했다.

당시 대장장이가 만든 조총을 무사들이 쏘다 어깨를 다치기가 일쑤였지만 대장장이의 딸 '와카사'를 탐한 포르투갈 선장(船長)은 그 때마다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를 눈치 챈 '와카사'는 위기에 처한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선장(船長)에게 스스로 몸을 바치고 밤마다 열심히 포르투갈어를 배워 그 비법을 알아냈다. अपना를 만들어 총신(銃身) 뒤를 단단히 받치니 머리 판이 뒤로 튀는 일이 없어 사무라이들이 다치는 일이 없어졌다.

이것이 왜(倭)가 조총을 갖게 된 경위다. 조총은 그로부터 49년 뒤 朝鮮 강토를 처참(凄慘)하게 유린한 뼈아픈 역사(壬辰倭亂)의 최대(最大) 무기(武器)가 됐다.

당시 朝鮮 인구의 10%에 가까운 60만 명이 임진왜란(壬辰倭亂)으로 죽었다. 오다 노부나가(大友宗直)는 조총 사수들을 22일

로 세워놓고 20조마다 1000발을 쏘아대는 새 전법을 개발, 화약(火藥)을 장진하는 시간을 최대한 줄였다. 이런 신무기 앞에 칼과 활로 무장한 朝鮮군이 막아 낼 재간이 없었을 터.

붉은 피가 조선(朝鮮)강토를 덮었을 것이다.

명장(名將)이자 기병술에 능했던 신립(申立, 1546-1592, 당시 삼도순변사) 장군(將軍)이 이끄는 조선(朝鮮)군은 무시무시한 천혜(天惠)의 요새인 문경새재를 놓쳤다. 노래하고 춤추며 통과한(及 歌舞而過) 왜군(倭軍)을 탄급대에서 맞았다. 조총의 위력(威力)을 몰랐던 조선(朝鮮)의 장수 신립(申立)은 탄급대에서 기동력(機動力)으로 한관승을 기대했으나 여지없이 깨졌다.

탄급대 논바닥은 진흙탕이다. 진흙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조선(朝鮮)군을 왜적(倭寇)이 무참하게 도륙했다. 그사이 임금 宣祖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 야반(夜半) 도주(逃走)했다.

이 조총은 동학(東學)란 때 더 위력을 발휘했다.

1894년 죽창(竹槍)과 쇠스랑을 든 동학(東學) 농민군(農民軍) 2만 명이 충청도 고갯길 우금치(牛金峙)에서 무참(無慘)하게 패했다.

당시 동학(東學) 농민군(農民軍) 2만 명을 상대했던 일본(日本)군은 조총을 현대화(現代化)시킨 신식무기(新式武器)로 무장한 2백 명에 불과했다.

동학(東學) 농민군(農民軍)이 가졌던 화승총은 분당 2발을 발사하는 수준. 사거리도 100보에 불과했으며 비가 내리면 무용지물(無用之物)이었다. 그나마 갖지 못한 농민군은 죽창이나 농기구를 무기로 들었다.

반면 조총을 꾸준히 개선했던 일본군(日本軍)은 사정거리(射程距離) 400-500보, 분당 12발을 쏠 수 있는 신형 무기 등 막강한 화력을 보유했었다.

日本 교토에 위치한 일본(日本) 임제종(臨濟宗) 대본산(大本山) 동복사(東福寺)를 비껴가는 곳에 日本식 정원 형태가 고스란히 보존된 영운원(靈雲院)이 있다. 1300년에 조성된 영운원(靈雲院)은 일본의 옛 건축양식(建築樣式)이 잘 보존(保存)되기도 했지만 정원(庭園)이 아름답다.

외부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좋은 영운원(靈雲院) 한쪽 관월정(觀月亭)은 도쿠가와 막후(幕後) 시대를 종결시킨 오쿠

보 도시미치(大久保 利通)와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등 메이지유신을 성공적으로 이끈 근왕파들이 정한론(征韓論)을 논의했던 무시무시한 곳이다.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가 정한론(征韓論)을 강력 주장했던 반면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 利通)는 일본 국내(國內)개혁과 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역설, 1894년까지는 이 입장이 고수됐다. 사이고는 정부(政府)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칩거 중 1877년 사쓰마 번 무사들이 일으킨 반란(反亂, 서남전쟁)이 패하자 결국 자결(自決)했다.

사이고는 죽었지만 정한론(征韓論) 현상(現象)을 지켰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등에 의해 1910년 조선(朝鮮)이라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영운원이 조선침략(朝鮮侵略)을 논한 곳인데도 한국인 관광객들은 정원의 모습에 취할 뿐이다. 당시 일본 신문에는 강제병합에 성공한 이토 히로부미가 정한론(征韓論)의 대부(代父)격인 사이고의 저승세계에 닭(雞)을 바치(宰)는 풍자(諷刺)까지 신문(新聞, 동경대 소장)에 실었다고 한다.

지금도 도쿄 우에노 공원과 고향 가고시마의 사이고 동상 앞에서 가슴 아픈 과거사를 잊어버린 한국(韓國) 관광객(觀光客)들이 기념사진(紀念寫眞)을 찍고 희희낙락(喜喜樂樂)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우리 역사(歷史)를 기억하기 편한 근세(近世)이어서 마땅치 않다. 한국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부관페리가 닿는 시모노세키는 선조(先祖)들이 일제에 의해 강제 연행, 맨 처음 일본 땅에 발을 디딘 지옥(地獄) 같은 곳이다. 아소 타로(麻生太郎) 전 수상 등 3명의 수상을 탄생시킨 규슈 아소가의 아소 탄광은 강제 동원된 조선(朝鮮)인 노동자(勞働者)들이 가장 악랄하게 수탈(收奪)당했던 근세사(近世史)의 현장이나 100년이란 짧은 세월(歲月)에 묻혀 버렸다.

한국인(韓國人) 관광객(觀光客)들은 1945년의 패전(敗戰)이후에 달라진 일본 사회의 속세(俗世)나 모습에 대하여 알려 하지 않는다. 처절(凄絶)한 과거사(過去事) 현장을 보고도 조국(祖國)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지금 우리나라가 겪는 무역위기는 뼈아픈 과거사(過去事)를 이는 데서 풀어나가야 한다.

일본의 두 얼굴 '군국주의의 망령-야스쿠니' 권철 작가 초청 사진전



포토저널리스트이자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인 권철 작가의 '군국주의의 망령-야스쿠니' 사진전이 3.1운동 100주년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을 맞아 일본의 역사왜곡과 경제보복으로 반일 불매운동 등 일본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스스로는 친일의 역사, 일본에게는 전쟁 범죄의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특별한 사진 기획전이 제주에서부터 시작하여 여수에서 전시되고 있는 중이다.

권철 사진작가는 1967년 한국에서 태어나 1994년 대학 졸업 후 일본으로 유학, 일본사진예술전문학교 보도사진학과를 졸업했다. 그 이후 약 25년간 일본의 두 얼굴과 숨겨진 일본의 현실을 카메라에 담아오고 있으며, 잡지사 사진기자 등으로 활동하면서 한센병 회복자, 신주쿠가부키초 오오쿠보코리안타운, 한류, 야스쿠니 신사, 제일조선인 등을 주요 피사체로 담아 왔다.

권 작가는 "일본의 극우 정치인들이 기념식을 만들고, 야스쿠니에서 의례를 하는 것은 전쟁을 추억하고 군국의 부활을 꿈꾸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권 작가는 야스쿠니 신사를 "일본이 군국을 부활하려는 속셈으로 남겨둔 신사"라고 소개했다. 꽃 역시 그렇다. 신사에 심어진 벚꽃에는 식민시대의 영화를 그리워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역사의 의미를 왜곡하고 정치 도구로 삼으려는 것을 막으려면 궁극적으로는 야스쿠니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번 전시의 취지에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일본 생활 25년째인 권 작가는 "저 자신은 맹목적인 반일감정을 갖고 있지 않다. 다수의 일본인들의 성실함과 배려심, 높은 애국심 등은 높이 평가한다. 다만 일부 극우 세력에게서 보이는 군국주의 망령과 제국주의 근성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관광지로 둔갑한 야스쿠니 신사의 이면을 알려 우리 스스로의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의 저서 '야스쿠니, 군국주의의 망령'을 보면 일본인에게 야스쿠니 신사가 어떤 의미인지 이해할 수 있다. 야스쿠니 신사



사투소가 발행한 리플렛에는 이곳을 '전쟁 중 조국 수호라는 공무 집행 중 자신을 희생한 분들의 고귀한 영령이 모셔져 있다'고 소개한다. 그러나 권 작가에 게 이런 문장은 "주변국을 침략한 전범국가가 침략 전쟁을 추억하고 미화하는 표현"일 뿐이다.

권 작가는 말한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전 군인들은 전쟁을 추억하고 신세대들은 전쟁을 기념한다.

참전 군인들은 육일기를 앞세우고 당시 군복을 다시 꺼내 입는다. 패전을 아쉬워하며 자위권 강화를 외치며 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꾼다. 아시아태평양전쟁 패전으로 잠시 숨을 죽였던 그들이지만 이제는 당당한 걸음으로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한껏 목소리를 높인다. 야스쿠니 신사에서 그들은 군국주의를 곱씹고, 다시 부활을 꿈꾼다."

이런 일본이기에 그는 "또 한번의 식민지 시절이 되풀이되지 않겠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한다. 섬뜩하다. 그가 사진전을 꾸준히 열며 야스쿠니의 의미를 널리 알리는 이유도 보다 많은 한국인들이 깨닫길 바라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그들에게 밥상을 차려놓고 있다. 그런 멍청한 짓을 반복하는 우리를 고발하고 되돌아보기 위해 사진전을 계속하는 것이다"고 힘주어 말한다.

"올해가 광복 74주년이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까지 광복절을 기리지만 할 것인가. 이제는 제대로 된 독립을 해야 하고 그러려면 알아야 한다. 한 번의 전시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나는 만족한다"

다큐멘터리사진가 권철 사진전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는 갤러리 ICCJEJU에서 8월 25일까지 기획전을 마치고 여수시의회에 이어 여수예술센터(8월 27일~9월 2일), 전남대학교 학생회관(9월 3일~9일), 여수청소년수련관(9월 10일~17일) 등에서 연이어 50여일간 열린다.



가 나 기 획



대표 권혁준 02)741-7191~3 / 010-5281-7191
집안 어른들께는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습니다.



세무법인 확인

대표세무사: 권혁창 (權赫昶) (010-3680-5057) 북야공파36대

업무내용

1. 세무업무 신고대리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원천세
2. 세무업무 기장대리
3. 세무 상담 및 세무컨설팅
4. 재산세 관련 세무 상담 및 신고대리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5. 법인설립(창업), 기업합병 상담

<본사>
서울시 강서구 발산로 40
농수산식품공사 강서지사 501,2호
Tel) 02-2640-6565
Fax) 02-2640-6569
근무세무사: 권혁창, 정부혜

<동부지점>
서울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가락물 업무동 10층 15,16호
Tel) 02-3435-6565
Fax) 02-3435-6568
근무세무사: 정대성, 김병재

<강원지점>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5
Tel) 033-375-7768
근무세무사: 김인섭